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19년 6월 제232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천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82-5658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평화는 호국보훈정신과 강력한 군대가 존재해야 지킨다"

오영안 장군, 임재엽 상사 추모식 6월 5일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봉행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충남기계공고 동문인 고 오영안 장군 23주기와 고 임재엽 상사 9주기 추모식이 6월 5일(수요일) 오전 10시 모교 교정 오영안 장군 흉상과 임재엽 상사 흉상이 모셔진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에서 동문과 모교 후배 학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관련기사 2, 3, 6, 7면>

고 오영안 장군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도중 순국했고, 임재엽 상사(올해 상사 진급 추서)는 2010년 북한군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순직해 나라에 목숨을 바쳤다.

두 사람의 순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육군 제607기무부대(부대해체 32사단으로 편입)가 주최했던 행사가 올해는 충남기계공고가 주최하고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가 주관하여 치렀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 임재엽 상사 부친과 모친이 참석했다. 또한 황의만 모교 교장과 교직원, 학생들과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1회), 이원승 전 총동문회장(8회. 예비역 준장) 등 동문들과 학부모, 기무부대원 출신 대전충남충호회 회원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순국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이장수 총동문회 자문위원(전 기무부대장)의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에 대한 약력보고 <2면 게재>, 헌화 및 분향, 묵념, '오영안 장군 장학금과 임재엽 상사 장학금 수여 및 학생통일탐구글쓰기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안 장군 장학금은 송지원(3학년 4반), 임재엽 상사 장학금은 임성찬(2학년 9반) 학생이 각각 받았다.

또한 전교생을 상대로 치러진 추모식 학생통일탐구글쓰기 대회에서는 이준(3학년 6반) 유정민(3학년 14반) 배준혁(3학년 10반) 등 3명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은 박종택(3학년 6반) 학생 등 6명이, 동상은 조형원(1학년 2반) 학생 등 9명이 각각 수상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본관 회의실에서 다과를 나누며 담소했다. 이날 다과회에는 학교측이 마련한 다과 외에도 임재엽 상사 부모가 약밥떡 4박스를 제공했다.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 추모식이 열린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동문들이 호국정신을 기렸다.

임재엽 상사 모친은 "그동안 재엽이의 상사 진급에 대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폭침 사고만 안 일어났어도 바로 진급예정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늦어졌다"면서 관심을 써준 동문들과 학교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과 내빈들은 "예년과 달리 군부대와 보훈처 등 관계당국의 관심이 거의 없어 당혹스럽다"며 "평화라는 미명으로 갈수록 북한의 눈치를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위기감을 넘어 월남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가자살의 순서로 가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지금이야말로 핵무기를 만들어놓고 이를 인정받으려고 세계를 상대로 흥정하고 있는 북한의 음흉한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한다.

평화는 호국보훈정신과 강력한 군대가 존재해야 지킬 수 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호시탐탐 전략에 맞서서, 막연하고 안이한 평화론보다 국민들의 국가안보관 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임재엽 상사 부모가 흉상 앞에서 분향하고있다.

행사 후 임재엽 상사 부모가 군 출신 이원승, 이장수 동문과 함께 했다.

충남기계공고 교정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산화한 오영안 장군의 흉상과 임재엽 상사 흉상이 세워져 국가보훈시설로 지정된 호국영웅동산이 인근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우는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6.25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절체절명 내우외환 위기"

〈호국영웅 약력 보고〉 이장수 총동문회자문위원(예비역 육군대령)

조국강산을 지키시기 위해, 적과 맞서 싸우시다 장렬히 전사하신, 고 오영안 장군님과 고 임재엽 상사님의 약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오영안 장군님은 1949년 8월 19일 충북청원에서 태어나시어, 69년 3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4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이수하였습니다. 71년 7월 육군소위로 임관한 후, 중부전선 15사단에서 중대장을 역임하였으며, 77년 6월 이후부터는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공작장교, 2사단부대장, 대공처공작과장, 3군단부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십여 명의 고정간첩을 검거하고, 국가와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대통령표창과 보국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탁월한 대공전문가이자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특히 3군단부대장 재직시인 96년 9월15일, 잠수함을 이용하여 강릉 해안지역으로 침투한 북한군특수부대가 정찰임무를 수행한 후, 9월 17일 복귀를 시도하던 중 잠수함이 암초에 걸려 좌초됨에 따라, 공작원 26명전원이 내륙산악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무장공비소탕을 위한 대간첩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1월 5일 오영안 장군님은 강원도 인제군 연화동 계곡에서 무장공비 2명과 아군매복조 간에 교전상황이 발생하자, 3군단합심책임자로서 도주 중인 공비가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북상도주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즉각 군단합심조를 인솔하여 교전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동틀 무렵 작전현장 도착즉시, 공비퇴로를 차단하도록 우선조치하고, 랜턴불빛으로 공비들의 도주방향을 확인하려는 순간, 50여 미터 이격된 풀숲에 은신하고 있던 무장공비가 쏜 총탄에 맞아, 안타깝게도 전사하시었습니다.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의 조문과 함께, 장군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국군기무학교에 흉상을 건립하고 유품을 보존함으로써, 국가와 군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 임재엽 상사님은 1984년 12월 22일 대전에서 태어나시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38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이수하였습니다.

2004년 8월7일 해군 205기 내기하사로 임관한 후 청주함, 영주함에서 어려운 함상근무를 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맡은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회 부대장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가 말은 없지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하다.

이장수 동문이 호국영웅 약력보고에서 호국정신의 쇠퇴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부터 서해5도를 경계하는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3월26일 21시 20분경 미치광이 김정일과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주도한 무력도발 시, 북한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천안함이 피격 폭침됨에 따라, 동료전우 45명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임재엽 동문이 전사한 이후 천안함 폭침 사실왜곡과 북한비호, 유족에 대한 불합리한 예우와 폄훼 등 국군통수계통의 무관심과 영혼 없는 처사로 인해, 전사한지 9년만인 금년도에 이르러서야 상사진급이 추서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 오영안, 고 임재엽 호국영령이시어 !

임께서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경술국치 당시 국가지도자들의 무지무능과 민생파탄, 해방직후 좌익에 의한 극심한 사회혼란, 그리고 동족상잔의 6.25전쟁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절체절명의 내우외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북한핵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민족반역자 김정은에게 굴종, 구걸해 얻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온갖 불온한 책동은 자중지란을 넘어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목도하는바. 오늘 이 자리에 수년간 참석해왔던 후배전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임에도 꽃 한 송이조차 놓여있지 않습니다.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연이어 불참하고, 4.3, 5.18 등은 행적불명자까지 극진히 예우하는 반면, 호국영웅은 귀태 취급하는데 대해,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임께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국군이 국가보위본분은 제쳐두고, 홍위병 강시들의 불파불립・조반유리식 적폐청산놀음에 부화뇌동하여 스스럼없이 용공, 통적, 여적,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젖주는 놈이 지에미라고는 하나, 체제수호와 국운개척에 앞장서야 할 각계지도층까지 영혼을 파는 작태를 볼 때, 병자호란과 경술국치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자살이 멀지않은 듯합니다.

영령이시어 바라옵건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불온불순분자들에 의해 더 이상 위험해 지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임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면 하시옵소서.

– 이장수 총동문회자문위원
(전 기무부대장) –

고침 : 본보 2019년 5월호 기사 중, '문경세재'를 '문경새재'로 바로 잡습니다.

"잊혀져가는 호국보훈정신 공경 안타깝다"

매년 군부대가 치르던 호국보훈행사, 모교와 총동문회 주최

일부 동문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눈치 심해져"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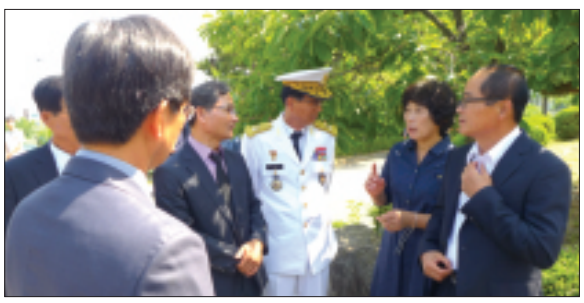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교 동문인 고(故) 오영안 장군(4회) 23주기와 고 임재엽 상사(38회) 9주기 추모식이 6월 5일(수요일) 오후 10시부터 모교 교정 오영안 장군 흉상과 임재엽 상사 흉상이 모셔진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앞에서 열렸다, 문제는 군부대의 태도다.

매년 모교에서 열리는 행사는 육군 제607기무부대가 주최하고 모교와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주관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앞두고 군부대(607기무부대 해체)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매년 참석했던 기무부대 장병들과 해군 등 군인들이 불참하고 모교 학생들과 동문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됐다.

일부 동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눈치 보는 일이 심해져 벌어진 현상"이라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개탄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임 향한 일편단심…”

추모행사를 앞두고


임재엽 상사 부모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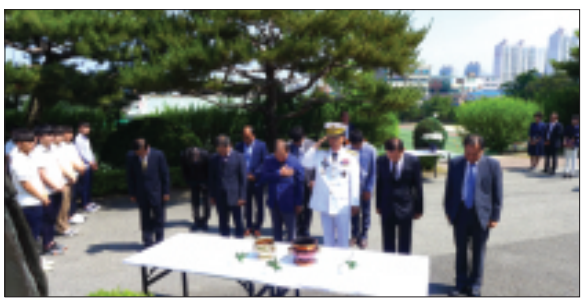
행사에 참석한 모교 후배들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해 경례

오영안 장군 흉상

임재엽 상사 흉상


총동문회 동문들 분향

황의만 교장과 모교 교사들 분향

학부모들 분향

예비역 충호회원들 분향

모교 학생 대표 분향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

모교 글짓기 시상

추모행사 후 모교 회의실 다과

임재엽 상사 부모 감사 인사

서한수 총동문회자문위원장 인사

강노산 동문(대전서구의원) 인사

참석한 충호회원들 인사

모교 학부모회장 인사

이장수 자문위원 호국정신 강조

“보문산 등반하고 점심 먹고 족구로 선 · 후배 우정 나눴다.”

2019년 전기과동문가족 춘계 야유회 및 등반대회 청원농장에서 개최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 보문산 시루봉에 올랐다.

점심식사 후 홀수와 짝수 졸업횟수로 나눠 친선 족구게임이 펼쳐졌다.

2019년 전기과 동문가족 춘계 야유회 및 등반대회가 6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보문산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문산 백골저수지 인근 청원농장에서 모여 보문산 시루봉을 올랐다.

약간 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위해 선후배 동문과 가족들은 보문산 숲의 향기를 맡으며 쉬엄쉬엄 보문산 정상인 시루봉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루봉에 오른 동문들은 잠시 휴식하고 단체사진을 찍은 다음 하산했다.

청원농장에서 점심시간 전에 간단히 개회식을 열고 준비한 상품(공기청정기 3대)을 추첨하여 전달했다.

이정식 전기과동문회장은 인사에서 “전기과의 전통을 이어 선·후배 및 동문가족이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낸 만큼 즐겁게 하루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를 위해 신경을 써준 동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식 회장이 당첨된 34회 후배에게 공기청정기를 주고 있다.

34회 동문들이 전기과동문회 친목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34회 동문들이 7명이나 참가하여 단합된 우정을 과시했다. 점심식사는 청원식당에서 닭볶음탕을 주 메뉴로 삼삼오오 식탁에 앉아 막걸리와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부침개 등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점심식사 후 열린 오후 족구경기는 홀수팀이 짝수팀에게 2대1로 역전했다.

바쁜 일상에서도 모처럼 참가한 전기과 동문들은 보문산 시루봉을 오른 후 준비된 점심식사를 맛있게 한 후 모처럼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족구 경기로 친목을 도모했다. 올해 전기과 야유회는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악수를 나누었다.

전기과동문회는 다른 과 동문회보다 가장 먼저 활성화되었고 총동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기과 춘계 야유회도 오래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전기과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종전처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 김희곤 편집위원(16회)–

“올 10월 열리는 총동문회체육대회에도 많이 참석해달라”

천안동문회 2019년 야유회 해미읍성과 천리포수목원서 열려

천안동문회(회장 서정훈. 16회) 2019년 야유회가 동문과 가족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6일 일요일 열려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천안 시내에서 오전 9시 30분에 대형 리무진버스를 탄 동문 가족들은 서해바다쪽으로 즐거운 소풍을 떠났다.

서정훈 회장은 “여러모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선배님들과 후배님, 그리고 가족분들이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문들의 대소사를 비롯해 행사를 통해 끈끈한 정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정종대(1회) 선배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동문들의 단합을 이어가자”며 “동문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가는 버스 속에서 간단히 마련한 다과 후 서산 해미읍성에 도착하여 성 둘레를 관광하고, 태안으로 이동하여 미리 섭외한 식당에서 즐거운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후 천리포수목원으로 이동하여 해설사와 동행하여 관람 후에 천안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간단한 맥주로 동문들 간에 이야기꽃을 피웠고, 이영규 천안동문회 총무(23회)가 “야유회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며 올 10월에 열리는 총동문회체육대회에도 많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동문회는 지난해 총동문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강팀이다.

–윤수원 천안동문회 홍보(28회)–

“설악산 대청봉 평생 60회 등정 꿈, 47년만에 이뤘다”

수원동문회 김기환(4회) 동문, 후배 3명 동반 힘입어 달성

김기환 동문이 대청봉 정상에 오른 후 후배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기뻤다.
좌로부터 이운주(8), 김기환(4), 조진수(15), 김상섭(10) 동문.

설악 대청봉 정상에 오른 김기환 동문이 미소 짓고 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나, 건강을 잃으면 그림 위에 떡일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동문회의 김기환 동문(자동차과 4회)이 등반으로 기록을 세워 동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김기환 동문은 지난 6월 5일(수요일) 설악산 대청봉을 60번째 오르는 평생 꿈을 후배들과 함께 실천했다.

설악산 대청봉(1,708m)은 남한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산으로 험하기 그지없다.

김기환 동문은 충남 부여 옥산면이 고향으로 홍산중학을 나와 충남공고 자동차과에 입학했다.

모교를 졸업하고 금성통신에 다니던 1972년 10월 2일 말로만 듣던 설악산 대청봉을 처음 등정했다. 이때 김기환 동문은 일평생 설악산 대청봉을 60번 오르겠다고 마음먹고 그동안 꾸준히 실천했다.

마침내 47년 만에 대청봉 60회 등정을 눈앞에 두고, 후배들이 뜻을 같이 했다.

후배인 수원동문회의 이운주(8회), 김상섭(10회), 조진수(15회) 동문이 따라붙어 힘을 보탰다.

김기환 동문은 1976년 삼성전자에 스카웃되어 이후 수원동문회에 참여하여 동문들 간에 우정을 나누고 있다. 수원동문회는 1980~90년대에는 삼성전자의 성장과 더불어 100여 명에 이르는 동문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나, 삼성전자 제조부문의 지방 사업장 및 해외 이전에 따라 동문회도 활동이 약화되어 명맥만 유지 하던 중, 금년 초 새로운 임원진 선출 이후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동문회는 조진수 회장(15회, 010-6647-6732)과 김현오 총무(15회, 010-3315-9231)가 조직의 재건을 위해 뛰고 있다.

올해 우리 나이로 72세인 김기환 동문은 “수원동문회가 새로 결성하여 조진수 회장과 김현오 총무가 열심히 해주어 고맙다”며 “바쁜데도 시간을 내어 이운주, 김상섭, 조진수 후배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격해 했다.

평상시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신조로 살고 있는 김 동문은 “수원에서 동문회보를 잘 받아보고 있다”며 “시간을 내어 총동문체육대회 등 모교 행사에도 수원동문회와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말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대청봉 등정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처럼 평생 등반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김기환 선배가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운주 수원동문회 동문(8회)–

“파주 심학산에서 9월 21일 충기산악회 초청 등반”

경기북부동문회 6월 정기모임서 몇 가지 현안 의결

경기북부동문회(회장 정인창.13회)는 6월 13일 저녁 파주시 정이품 식당에서 15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아귀 수육과 진도 울금막걸리를 맛있게 먹고 마시며 한바탕 웃으며 정을 나눴다. 회식 후 2차로 최회재 동문 아들이 경영하는 빠리바게뜨 대화성지점에 들러 차와 제과를 들면서 주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우선적으로 7월 정기모임은 7월 13일 의정부지역 동문과 연합하여 의정부쪽에서 갖는다고 확정했다.

그리고 오는 9월 21일(토요일)에 충기산악회를 초청하여 심학산 둘레길을 동행하며 우정을 나누기로 했다. 이날 점심은 경기북부동문회에서 제공한다.

또한 경기북부동문회 연회비 납부기간을 매년 2월말로 정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각종 대소사시에 적용하지만 언제라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혜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6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 11명이 문자메시지로 아쉬움을 표하고 다음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인창 회장은 “동문들간의 소중한 우정에 감사드린다”며 “더운 날씨에 마음 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웃으며 긍정적인 삶으로 오래 오래 충기 동문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경기북부동문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전국 지역 동문회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임동현 경기북부동문회 총무(21회)–

“수원화성 및 에버랜드 등 경기도 일원에서 수학여행 추억”

모교 2학년 학생 313명 6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수학여행

모교 2학년 학생 313명이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수학여행(현장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산지식을 넓히는 학습 활동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은 경기도 일원으로 에버랜드(1일), 캐리비언베이(1일), 수원화성 및 행궁, 안성팜랜드(1일)에서 실시됐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장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숙소를 제외한 일정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소규모 테마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됐다.

모교 2학년 학생들이 경기도 일원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사진은 수원화성.

인솔교사들은 수학여행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도록 버스 승·하차 지도 및 숙소 내 안전을 위해 잠을 설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 관광버스 전복사고, 헝가리 관광사고 등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부터 사전교육 실시, 당일 인솔 지도, 응급 보고체계, 응급 구호 체계까지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황무환 교사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학생들이 같이 이동함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유병춘 편집위원(11회. 모교 교사) –

“전자기기 등 12개 종목 380여 명 응시”

3학년 학생 기술자격 필기면제자 실기시험

모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특성화고 필기면제자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그 동안 이 시험에 대비하여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 받기 위하여 각 종목별 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 종목은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전자기기,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전기용접, 귀금속 가공, 전자기기 등 12개 종목에서 380여 명의 학생들이 3년간 갈고 닦은 기능을 한껏 발휘하여 시험에 응시했다.

이번에 응시한 특성화고 필기면제 기능사시험은 특성화고 3학년 졸업예정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례 조항으로 3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치이다.

이와 같은 특례는 졸업예정자인 3학년 학생으로 이번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불합격하게 되면 금년 말에 한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게 된다.

여러 개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도 많이 있지만, 이번 시험이 또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일과가 끝난 늦은 밤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기능을 연마했기에 모두들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독일방식처럼 평화통일로 가야”

〈학생통일탐구글쓰기대회 금상〉 이 준(3학년 6반)

우리는 평소에 특별한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휴전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현재 잘 살고 있는데 종전해 버리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시작된 하나의 민족으로 일제강점기 때에도 단군을 외치면서 버텨낸 하나의 민족이란 말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일의 의미를 정의해보자.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통일 된 후에 우리나라를 상상해 보자.

첫 번째로는 북한에 묻혀 있는 희소성이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다. 북한은 지하에 금, 은, 마그네사이트, 흑연, 히토류 등 여러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자원들은 뒤쳐지는 기술력 앞에 점점 그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더욱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 등 강한 나라를 상대로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와 우리나라의 면적 확장이 된다.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 5천만명 이고, 북한은 약 2,50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도 동시에 진행되어 평균 연령대가 점점 높아져가고 만 있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암흑기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서 인구가 합쳐지면 인구는 약 7,500만 명으로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고 문화도 발전할 것이다. 또한 영토가 확장되면 약 22㎢로 선진국인 영국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

그 후 유럽까지 철도를 이어서 물류 이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로 관광지 개선이 있다. 북한에는 백두산, 금강산이란 큰 산도 있고 평양에 옥류관이라는 맛집도 있다. 그 외 부분에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도 많다. 이러한 유산들이 발전을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나라 성장에 큰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군사력 증가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항상 전쟁 대치 중에 있어서 그 군사력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다. 여기서 그 군사력이 합쳐진다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국가의 안보는 안전이 보장 될 것이다.

– 7면으로 계속 –

수입 현황

기간 : 2019년 5월 29일 ~ 6월 25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자	1	조관현	20,000	기	12	전교식	10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3	홍명표	20,000	기	13	박찬휘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전	4	권수복	20,000	기	13	이영일	20,000	기	17	송기섭	20,000
방	7	김이중	70,000	기	13	정임조	50,000	기	19	박문수	20,000
전	10	오창균	20,000	기	14	조용희	20,000	기	20	김태환	50,000
방	12	오세구	2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26	권경중	200,000
기	12	송용관	50,000	기	16	신영태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12	권석환	100,000	기	16	이재흥	20,000		은사	함용도	20,000

회보광고비

기	14	이용선	50,000
화	15	정영환	5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우	500,000
기	21	진춘식	100,000

제9회 한마음 등반대회

전	3	이종욱	100,000

학생통일탐구글쓰기 6면에서 계속

이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고 그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처음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시 들어가는 비용이 10년간 2,167조원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매년 사용하는 군사비는 약 43조원 정도, 북한은 10조원씩 지출되고 있다. 이런 지출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손실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통일이 되면 그 군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통일이 되면 생기는 이익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차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학교생활, 취미활동 등 우리와 다른 점을 찾아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로 통일 초반에 생기는 실업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취업난으로 취업률이 낮은 상태이다. 여기서 북한 일꾼이 남한으로 오면 취업이 더 어려울까? 그것은 아니다. 통일시 생겨나는 직업도 많을 것이고 건축,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손도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고 통일한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예전 서독,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 두 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었지만 서독이 희생을 한 결과 빈부격차는 완화되었고 지금의 독일이 될 수가 있었다. 우리도 북한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통일이 되어도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된다. 그럼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에 열린 평창올림픽에 선수들이 함께 했듯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 그것이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나 또한 통일을 바라지만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잘 몰랐었다. 이번 글짓기 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82-5658

"베풀어준 은혜, 회사 발전으로 보답할터"

가르텐 본사 유성사옥 신축확장 기념식

한윤교 회장(16회) "동문회 발전 기여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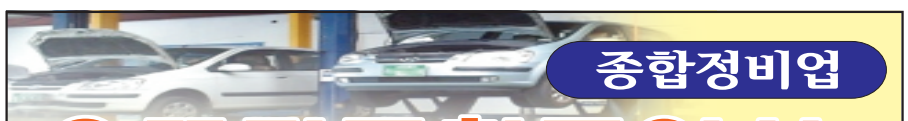
2층 건물에서 6층으로 크게 확장한 가르텐 신사옥

사옥 준공식에 윤석길 16회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르텐비어, 치킨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주)가르텐(회장 한윤교.16회)이 유성 본사건물을 확장 신축하여 기념준공식을 6월 13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윤교 가르텐 회장과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해 윤석길 16회동문회장 등 동문들이 참석하여 발전을 기원했다. 한윤교 가르텐 회장은 "베풀어준 은혜를 갚는 길은 신축사옥에서 열심히 일해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가르텐은 서울소재 본사를 대전시 유성구 온천북로 33번길로 사옥을 구입하여 이전했다가, 이번에 사옥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 김희곤 편집위원(16회)–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법무사 / Beommusa Lawyer
정 영 환 (15회)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최선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분야 ●신청분야 ●형사소송분야
●법원에 관련된 모든일 ●등기분야
●개인파산, 회생 ●집행 및 경매분야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301호(둔산동, 청남빌딩)
전 화 : 042-472-8061 팩 스 : (042) 472-5780
휴대폰 : 010-5487-8060
이메일 : jungyh9@naver.com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YB 영빈테크
국내최초 곡면 날 스텐작두
약초 채취용 곡괭이 대표 : 정용원(15회)
정밀금형, 설계제작, JIG제작, 특허개발, 약초곡괭이, 스텐작두
검색 : 다음블로그 영빈의 작은공간
구입. 제작문의 : 010-5408-98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쓰로 91 (호계동 한국프라자 3층 301호)
E-mail : jyw0021@hanmail.net FAX : 031)427-9767

황 학 순(13회) 010-3441-8886
☎042) 284-8880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24-1번지(식장산)

ZIN solar 지인솔라에너지
Z-IN Solar Energe

대표 우진권(33회)
010. 8315. 0128
Tel 1522-9745
zinsolar@naver.com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53-14
태양광발전사업[RPS] 전문기업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크라운출장뷔페
CROWN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
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 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용프로 골프
대표 임 태 수 (6회)
사단법인 한국골프클럽피팅협회 Korea Golf Club Fitting Association
지정 피팅골프샵 010-5401-34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8-18
Tel. 042-823-9044 Fax. 823-9055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현(12회)

CHUNGHO 청호나이스
www.chungho.co.kr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청호나이스 25년 기술력의 결정체 휘카페 – IV 엣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18년 연속 수상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우케미컬 및 칼곤사의 필터 재료사용
대전유성지사 박 선 규 (25회)
010-3882-5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 5층(지족동)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왕왕양꼬치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282-5658 총동문회 사무처

※동문회 운영은 연회비 납부에 달려있습니다!
동문들께 호소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보 발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대표전화
☎282-5658